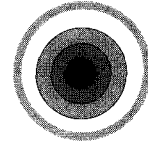


News Review

● 정부·단체 ●



농산물포장센터 설립 산지유통핵심체로 농림부, 획기적농산물 유통개선안 발표

지난 9월 6일 대전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최, 『농산물 포장센터,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 세미나는 농산물포장센터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산지 유통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키 위한 것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농림부 심상인 시장과장은 청과물종합처리장 사업에 신규신청자가 없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을 농산물포장센터사업에 통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과물종합처리장은 현재 추진중인 전남 나주, 경북 안동, 경남 거창등 3개소만 완공하고 사업이 종료되며, 간이집하장도 당초 전국에 4천 개소 설치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97년까지 3천2백개소건설로 일단 마무리하고, 2004년까지 1천5백50억원을 투입, 농산물의 주요 산지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1백60개소의 포장센터를 건설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96년까지는 총사업비의

70% (부지대는 자기부담)를 보조했으나, 97년부터는 총사업비의 60%를 보조(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20%)로 하고, 국고용자를 20%, 자부담을 20%로 하여 사실상 자부담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4년에는 간이집하장, 포장센터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하여 소비지와 견본거래, 주문거래, 직거래등 선진유통기법의 도입이 가능해져

거래단계의 축소, 물류이동의 최소화, 보관수송의 효율성 증대등으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재산 영농법인 김영학 대표는 농산물포장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포장센터에 대한 선별적 집중지원과 소비지와 직거래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장공단에 80만평규모 제지 전용단지 통산부, 신산업 발전회의서 밝혀

지난 8월 1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9회 신산업발전민관협력회의(제지분야)에서 박재운 통상산업부장관은 내수위주인 제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키위해 각종 제조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전용공단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 군산과 장항의 군장공단에 오는 2001년까지 부두를 갖춘 제지산업 전용공단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고부가가치 특수지 개발 등 핵심애로기술을 공동애로기술개발

과제로 추진하고, 제지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이기위해 현재 2% 수준인 펄프 및 목재칩의 수입관세를 무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지 수집상들의 장비구입 등에 대해 자금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료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해외에서 조림을 할 경우 산림개발자금등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2003년부터 해외조림지에서 생산된 원목을 국내에 반입키로 했으며, 국산

화학펄프의 자금도를 현재의 17%에서 30%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2001년까지 36만톤 규모의 펄프제조 설비의 추가건설을 하기로 했다. 박장관은 또 전통한지 제조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0년까지 20억원을 지원, 한지제조기술을 표준화하고, 2001년까지 제지산업 폐기물인 슬러지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는 물류의 표준화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운행중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에 표준 팔레트(1.1×1.1m)를 이용, 효율적인 화물수송을 위하여 물품적재 장치의 너비를 확대하고자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시에는 당해 자동차 제작사가 생산하고 있는 같은 톤급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규격 범위내에서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시달되었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회사는 국가 Pallet 치수1100×1100mm에 맞는 화물적재대 차만을 제작판매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 물류개선사업 100억 지원
97년도 배추포장화 전면실시 기반 구축**

정부는 농산물의 물류체계 합리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하고, 9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운태 농림부 장관등이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찰하여, 97년도 예산에 배추의 포장화를 위한 규격포장화 사업에 52억 5천만원을 배정하고, 하역기계화장비 구입비로 47억 2천 5백만원, 도합 99억 7천 5백만원을 책정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규격포장화 사업비중 47억원은 골판지상자로 하고, 나머지 5억 5천만원은 프라스틱용기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플라스틱 위주의 편견을

갖고, 산정초기 11억원규모의 예산안을 책정한바가 있으나, 소비자 판매용 배추포장은 골판지상자가 최적이라는 배추유통업계 및 정책 당국의 올바른 인식과 세계 제2 배추 소비국인 일본이 배추포장에 100% 골판지상자를 사용 출하하고 있는 일본도교 『오따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이 참고가 되어, 골판지포장업계의 일관되게 노력한 결실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한 부총리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없이는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이 불가능한 만큼, 생산자의 안정소득 보장과 서민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중소기업 전용전시관 개장
서울시 지원, 3천 9백여평 규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여의도소재 안보전시장부지에 건립한 중소기업 전용종합전시장을 지난 8월16일 개관하였다. 서울시 소유인 8천5백평의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기협중앙회가 시설설치 및 전시장 운영 활동을 하게 되는 전시장은 바닥면적 2천 8백62평, 판매장 및 부대시설 1천평으로 총 3천8백62평규모로 개관하게 되었다. 전시장운영은 공개공모 절차에 따라 하되, 국제무역전시회나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단체가 주관 또는 중심인 전시회, 신제품개발등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큰 업종의 중소기업 제품이 우선적으로 전시된다.

**보통5t차폭 2280확대 구조 변경가
건교부 1100×1100 팔레트 사용케 시달**

보통 5t 화물차트럭의 적재함의 폭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8월 30일자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자동차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물류표준화의 전제가 되는 표준팔레트 보급확대와 중형트럭 5t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2120mm로 생산보급되고 있는 중형트럭의 적재함 폭을 광폭규격인 2280mm로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골판지포

장공업협동조합이 배추포장화 산업을 추진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통 5t 트럭의 하대 치수폭 2120mm에 1100×1100mm 국가 Pallet 규격 적용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하여 5t차폭 2120mm를 2280mm로 구조 변경 승인을, 7월 22일 조합이 건의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96.8.9일자 자판 91162-296호 공문으로 『최근 정부에

**외국인 기술연수생이탈 방지책
중기청, 전문과리업체 설립 추진**

최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 이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중소기업청은 불법이탈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과리업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수생들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문업체를 선정, 연수생 관리를 총괄토록하는 고시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격상
농산물품질·안전성검사 업무확대로**

정부수매양곡검사 및 국내 농산물의 품질 규격 제정 관리 등을 주로하고 있는 국립농산물검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격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9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수매양곡검사와 일부 품질인증농산물의 품질규

이달중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인 이같은 방침은 중앙회가 고시안 내용에 따라 연수생 전문과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연수생전문과리업체의 자격기준을 정한 후, 바로 업체를 선정해 운영에 들어 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협 중앙회는 전문과리업체의 선정은 물론, 이들 업체에 대한 벌칙부과 및 사업권 취소등의 권한을 갖고 업체들의 활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격검사에 치우친 국립농산물검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생산단계의 일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등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품질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에 자격증 발급허용
정부 직업훈련 정비안 확정**

97년도부터 정부의 평가를 거친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국가공인자격과 같은 자격증이 발급된다.

정부는 지난9월 4일 교육개혁위원회 제 2차 교육개혁방안의 핵심과제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 직업교육훈련체제구축과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므로써 현장에서 필요로한 기능력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자격증제도를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신력을 가진 각종 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상호연계시키기 위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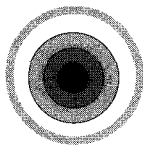
정수준 이상의 학원 사내대학 기능대학등 직업교육 훈련기관 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수료 즉시 자격증 취득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예방기술개발 지원
환경부, 자금 및 자격인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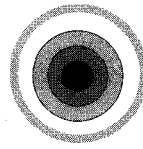
환경부에서는 그린라운드 등 환경보전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환경기술의 자금지원과 국가인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사후관리 위주였던 환경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환경기술의 범위에 환경오염 사전예방기술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융자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금, 염색등 분야에서 환경을 위해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 공모때도 환경오염 사전예방기술을 별도로 취급하여 특별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후처리 기술보다 원료의 대체나 공정의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미리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로 하는 등 고도의 기초과학이 응축된 환경관련산업을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자금지원과 애로기술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News Review
● **업계 동향** ●



**배추 골판지포장 적성수송시험 대성공
산지 다듬배추, 쓰레기 없고, 선도유지 깨끗해**

지난 8월 5과 16일 배추포장 골판지 포장화 적성수송시험을 평가단 평가위원 8명과 정부, 가락도매시장, 유통인, 배추생산자 등 관계자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성공리에 마쳤다.

농림수산부 주무 당국은 물론, 배추 생산업계, 배추유통업계, 포장업계 및 배추소비자 모두의 숙원사업인 배추의 포장화 추진 대과제를 한국골판지포장 조합주관, 제 1,2차 적성수송시험을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구산리 해발 800m의 태백고지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를 산지에서 다듬어 골판지상자에 포장, 팔레트 적재로 수송한 결과 상자의 파손이나, 배추의 손상이 없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 반입되었다.

지난 8월 5일 밤에 도착한 골판지상자 포장 팔레트 배추를 지게차로 하차한 후 제일 먼저 경매에 들어갔는데, 수송시험한 포장배추가 무포장산물배추 경매가보다 많게는 두배가량에 해당하는 5t차량 기준으로 32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지난 16일 플라스틱 포장배추와 비교 경매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포장배추는 8톤 운송트럭에 약 2400포기 가량이 적재되었으며, 골판

지포장 배추는 2,800포기가 적재되어 적재효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냈고, 1상자당 플라스틱은 3,200원(4-5포기 들이), 골판지상자는 4,000원(4포기 들이)으로 소매상인은 물론, 소비자들로 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이번 수송시험에는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과 한국포장학회,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국내 농산물 유통 관련기관을 망라한 40여명의 평가 및 참관단으로 입회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배추산지인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 직접 포장작업을 관찰하였으며, 표준포장작업공정의 설정과 적정 포장 기준강도 치수 및 하역방법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주부클럽의 김영주 사무처장은 배추가 1,200m이상 고지대에서 생산된다는 점도 놀랍지만, 도시에서는 문제의 쓰레기가 되는 배추다듬기를 산지에서 하기 때문에 거름이 되는 점, 그리고 무포장 배추에 비하여 신선도가 월등히 유지된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된다며, 배추의 포장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포장배추가 무

포장 벌크배추보다 경매가격이 높으니까 소비자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는 선입견은 무포장 벌크배추에는 경락가격+하차비용(차상 경매임으로 한포기 한포기 하차 필요)+시장내 다듬기+재포장비+청소비+쓰레기유발 부담금이 빠져있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어렵게서 무포장 배추가격이 최저 15%에서 25% (감모손실비 감안시) 이상이 비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동안 농림수산부, 가락동 서울 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에서는 도매시장쓰레기 총량중 62%에 해당하는 배추쓰레기가 일대 사회문제로서, 연간 55억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에 풍기는 악취, 운송도중의 배추상품 손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 유통개선과 도매시장의 근대화 차원에서 배추포장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일환으로 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는 특별사업비 5억원을 재원으로 전국 배추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인연합회에서 출하하는 96년도 고랭지 배추의 포장화를 추진키로 하고, 100만매 가량의 시범사업을 8월 21일부로 한국골판지포장공

업협동조합과 단체적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96년도 배추포장 골판지포장 시범 본 출하사업이 성공적 출발을 하게 되었다. (상세내용은 본문 89p 『배추포장 골판지포장화 유통개선 추진경과 규격 자료통계 보고서』 참조)

삼성그룹 컴퓨터 무상지원 골판지포장조합 15대 인수 예정

삼성그룹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정보화 지원을 목적으로 386pc 삼성컴퓨터 10,000대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지원하여, 한국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16대를 배정받아 조합원을 대상으

대양 - 신대양제지 통합경영체제 구축 2천년 100만 t규모 공격적 경영 해외시장주력

대양제지공업(주)와 신대양제지(주)가 통합경영체제를 구축하면서 2000년까지 100만t의 골판지원지 생산설비를 갖추기로 하는등 대대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작업에 나섰다.

골판지용골심지와 중급라이너를 주로 생산하는 양사는 각각 별도법인으로 운영하되, 경영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운영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설비 증설과 사업재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우선 연산 63만t 수준인 골판지원지 생산능력을 올 연말까지 80억원을 투입, 70만t으로 확장하고, 3년내 2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30만톤 규모의 설비를 주로 대양제지를 통해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양사는 경영의 효율화와 국제

로 컴퓨터 도입 초기인 조합원사를 선 순위로 하여, 신청 접수순으로 배정원칙을 적용, 조합원 32개사 신청가운

해외바이어 초청 과실수출 촉진 유통공사, 과실수출확대 세미나 개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지난달 28일 무역센터51층 무역클럽에서 농림부 후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96년도 과실판매촉진을 위한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사 신대진 사장은 개회 인사에서 WTO체제하에서 국가보조금 지

데, 경북 대구소재 기흥포장공업(주), 전남 목포 소재 동서산업(주) 등에 배정하였다.

급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서는 해외바이어를 초청 하고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등으로 국내산 과실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행사의 취지는 바이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출촉진에 기여코져 계획하였음을 밝혔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 및 토론에는 일본의 요시히사 마쓰바씨는 한국산 사과는 미국, 뉴질랜드산 사과에 비해 안전성은 높으나, 일본에도 한국산과 같은 품종이 있어 가능하면 저온저장등을 통하여 일본산과의 유통에 있어 시차를 가져가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존 친 캐나다 대표도 한국은 적절한 기능을 갖춘 조직화된 수출체계가 미흡하고 생산 농민들이 최상의 상품을 생산 수출하고자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고, 황금배, 후지사과, 등 우수한 품종을 고품질로 생산할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출 증대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태국의 과실수입 및 유통현황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로 부터의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경영체제를 구축해, 최근 권혁용 대양제지 사장이 회장으로, 권혁홍 신대양제지 사장이 양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서울사무소를 서초동으로 통합, 영업과 해외마케팅을 통합체제로 관리한다. 지난 25년동안 외국제품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게하는 방어적의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격적 의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역별 해외 판매대리점제를 채택해 해외 마케팅 영역을 강화하고,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이중지출을 줄이는등 경비절감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제지, 삼진수출 제삼공장 인수
판지에서 카톤 Box 일괄생산 구축**

마니라판지 전문생산업체인 중앙제지(대표이사 유 희운)가 지난해 9월 부도를 낸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제조업체인 삼진수출포장을 인수했다.

중앙제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경매에 응찰하여, 총 30억 1천만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삼진수출포장은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 제삼업체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부도를 냈었다.

중앙제지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 의약품포장에 주로 소요되는 판지상자의 원자재인 마니라판지를 생산하여 카톤 Box 가공을 직접하는 수직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골판지 및 상자 관리용 꾸러미Ⅳ 출시
(주) 경북, 생산관리·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지난 80년대에 설립하여 활동해온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공업계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경기 수원 소재(주) 경북(대표이사 권순모)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골판지 및 관련업계의 생산관리의 통합관리 및 통합회계 프로그램인 꾸러미Ⅳ(꾸러미Ⅳ-Out Box, 꾸러미Ⅳ-Color Box, 꾸러미알

파-골판지, 꾸러미 인사 급여, 꾸러미 회계)를 최근 출시하여 업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생산관리와 인사, 회계부문의 관리체계를 바로잡아 2%의 경영손실을 되찾아준다는 목표 아래 이미 100여개사에 업무전산화 관리체제를 구축 서비스관리하고 있다.

**푸렉소프린터 5도 인쇄기 도입
동서수출포장(주) 고품질 양산체제**

골판지포장 전문생산업체인 동서수출포장주식회사(대표:정병주, 경북 구미시 공단동소재)는 금년 8월 골판지포장기계 전문설비회사인(주)동양기계로 부터 분속 170매 이상 생산이 가능한 전장 2,800mm의 푸렉소프린터 5도인쇄기를 도입하여 금년 9월 부터 우수한 고품질 골판지포장제품(특히 농산품)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90%정도 향상하는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생산성 증대 및 영업망 확대에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96년 매출액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5년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외부 컨설팅인사를 초빙하여 공장 자동화와 공장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전사원의 품질 및 불량개선에 대한 의식함양 등 사원교육을 통한 2000년대의 비약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0회 국제 인쇄기계·재료전
8. 23 - 27 한국종합전시장서**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사 주최로 인쇄문화의 향상발전과 국내외 신기술 신소재 인쇄기계 공업발전을 위하여 지난 8월23일 부터 27일까지(5일간) 한국 종합전시장(KOEX) 태평양관과 대륙관에서 '96 국제 인쇄기계·재료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국내외 21개국 308개사가 참여하였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쇄, 제판, 제본, 전자출판 및 스크린 인쇄 등 관련업계의 첨단기자재들이 전시되었으며, 골판지포장 기계업계에서는 일경기계, 한국교역, 세일양행, 한국아사히, 코팩시스템의 골판지 인쇄기계 등이 출품되었다.

**한솔제지 환경산업 진출
120억 투자 공동소각로 개발**

한솔제지(대표 구형우)는 지난달 8월 19일 대전공장에 총 120억원을 투자해 독자기술로 공동소각로를 개발, 폐기물 관리를 비롯한 환경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설비 국산화율이 97%에 달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로 완공한 공동소각로는 대전 인근의 한솔제지, 한솔포럼, 한솔화학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폐비닐, 폐지 등의 폐기물을 하루에 7백톤 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유동층 소각로이다.

이 유동층 소각로는 폐기물을 완전 연소시켜 대기오염을 극소화 할 수 있

으며, 연소효율이 높아 종이, 목재 등 저열량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술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소각

로에 폐열보일러를 갖추고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공정용 스팀을 생산, 생산공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쇄 골판지포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의 대형 골판지포장 생산업체들은 고가의 정밀 골판지포장 인쇄기를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다국적기업 E.L그룹 한국 Agent
(주) 옴니교역 골판지기계 영업개시**

다국적기업 E.L 그룹 한국 Agent (주)옴니교역 골판지기계 영업개시 독일제지관련 종합 설비회사인 E.L 그룹(Erhardt Leimer)의 한국 Agent (주)옴니교역(대표 : 안현철)이 지난 4월 싱가포르 포장전 및 6월 한국골판지산업전 전시참가를 계기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E.L 그룹은 지난 80여년간 Wed Guiding 및 Tensioning System을 제작 공급하는 등 전세계 18개 지사 및 서비스센터를 두고있으며, 특히 EL의 Bielefeld는 골판지용 Guiding 및 Tensioning Equipment를 주로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이설비는 생산 중 발생하는 Down Time 뿐만아니

라, 원료손실을 최소화하여 기계적 결합(노후화) 및 원지결점을 감안, Dry-end에서의 Trouble 발생요인이 되는 Wet-end에서의 Tension 및 원단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자동화 설비이며, 기존의 메카니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Solution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Item으로는 Pre-Heater나, Gluer에 들어가는 원단을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Tention을 자동조절하는 Tension Master, 진행하는 원단을 센서를 통하여 안정하게 유도하는 Corrugingner, 고속 자동화 설비에 적합한 Corrtac(텐손콘트롤 및 가이딩), ELcorr(보상롤) 등이다.

국내 골판지포장 인쇄기계 제조업체에 따르면, 정밀인쇄기 제조에는 높은 선수의 세라믹 아니록스롤이 필수 부품이지만, 지금까지 국산화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 기계에 대항할 국산 정밀기계제조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인쇄기와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국산 고품질의 인쇄기계의 개발생산이 기대된다.

또한, (주)동원롤에 따르면 자사의 설비로 1인치당 25선에서 최고 1200선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골판지포장 인쇄의 특성상 주로 360선/인치 전후의 주문이 많으며, 국내의 골판지포장 인쇄기계 메이커들로부터 다량의 주문을 받았으며, 이미 납품한 골판지포장업체들로부터 추가 발주를 받는 등 (주)동원롤은 자사의 세라믹 아니록스롤의 품질에 대한 높은 신뢰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회사 동원롤, 세라믹 Roll 개발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대체 기여**

주식회사 동원롤 (대표이사:전동식, 서울시 성동구 소재 02-465-1177)은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 아니록스롤(Ceramic Anilox Roll)을 국산 개발하여, 골판지포장 인쇄기계에 장착, 현재 시판 사용되고 있으며, 세라믹 아니록스롤 사용에 따른 잉크, 수지판, 고무롤을 포함한 제반기술면에서 수입인쇄기와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할뿐만 아니라, 기존인쇄기보다 2-3배의 인쇄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포장용을 비롯하여 포장의 다색화 경향과 관련하여, 고품질의 컬러

